

신창동 유적지에 선사체험 학습관 들어선다

광주시 140억 들여 2019년 착공 2020년 완공 벼농사·옴집·어로 등 야외 체험 학습장도 건립

국내 최대 선사문화 복합유적지인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 선사체험 학습관이 들어선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140억원을 들여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 내 1만500여㎡ 부지에 전체면적 3000㎡ 규모의 선사체험 학습관과 5000㎡ 면적의 야외 체험 학습장을 건립한다. 학습관에는 선사문화관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실을 비롯해 체험실, 수장고,

시각각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야외 학습장에는 어린이 선사유적지 발굴 체험장과 함께 과거 선조들이 했던 벼농사 체험장, 원형과 장방형 등의 옴집 체험장, 사냥과 어로 체험장, 망루 등이 설치된다.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친 뒤 2019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0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신창동 유적 활성화 전담팀(TF)을 구성, 선사체험 학습관 건립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문화재청과 예산지원, 사전평가 등 협의를 마쳤다.
광주시는 유적지가 대도시 인구 밀집지에 있는 만큼 공원형 선사문화 유적지로 정비, 도시민의 여가 공간 활용, 주민참여 유도, 각종 선사문화 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창동 유적지는 세계 최대의 벼 생산 유적을 비롯해 각종 칠기와 현악기, 신발을 만드는 틀인 신발골, 수레바퀴 등 국내 최고의 선사시대 목기(木器)유물이 출토

한 곳으로 유명하다. 또 논벼(수도·水稻)와 밭벼(옥도·陸稻)의 생산기반을 가진 국내 최대 유적지이자 저습지 선사유적이라는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창 유적지는 학술 가치와 선사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정체성을 가진 유적이지만 40여 년간 학술적 발굴과 보존에 치중했다”며 “향후 다양한 체험 위주의 학습관을 건립함으로써 유적의 보존·관리, 활용 등 지역의 대표적인 열린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달의 무인도서예 여수 '하백도' 선정

해양수산부는 8월의 무인도서로 여수에 있는 '하백도'(下白島)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백도는 여수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약 28km 지점에 있으며, 멀리서 봤을 때 섬 전체가 온통 흰색으로 보인다고 하여 백도(白島)라 이름 지어졌다.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로, 영도주권 수호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다. 하백도는 또 각종 식물·조류를 비롯해 바닷속 붉은 산호초들과 거북바위, 울송이바위와 같은 기이한 바위 등 정경한 자연의 모습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어 국가 지정 문화재(명승 제7호)로 지정돼 있다.
하백도는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존 무인도서예 해당돼 섬에 직접 출입할 수는 없다.
다만 거문도 여객선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백도용 유람선을 이용하면 그 절경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중 관광객 끊겨 텅 빈 서울 명동거리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며 2분기 여행 수입이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여행수입은 29억4600만 달러로 2011년 2분기 26억7100만 달러 이래 최소였다. 분기 여행수입이 3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6년 만이다. 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무척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내년 국비확보 총력전

윤시장, 김동연 부총리 면담... 김중식 부시장 靑 방문 지원 요청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광주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 및 미래 핵심산업 대부분을 포함시킨 광주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4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김중식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관계자를 각각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윤 시장의 이번 서울 국비활동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승차 향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했다가 귀국한 지 이

틀 만에 이뤄진 강행군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김 부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했다.
이날 윤 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를 만나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국비 반영이 이뤄지지 않거나 반영액이 당초 기대보다 적은 13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 사업은 ▲경전선(광주~순천 간) 전철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48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62

억4000만원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 개설 100억원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 50억원 ▲레독스 흐름전지(RFB) 기술 고도화 30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 조성 60억 5000만원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억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호남지역본부 설립 2억원 ▲광주 남구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 확장 25억원 ▲의료용 생체흡수성 소재 사업화 지원 70억원 ▲IoT, 빅데이터 기반 금형제작 가치사슬 혁신 지원 40억원 ▲스마트 첨단의료로봇산업 혁신 지원 50억원 ▲광주 솔로몬파크 건립 유지 10억원 등 551억9000만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윤 시장은 “광주는 기존에 구축된 산업 기반이 거의 없사피 해 추경예산 지원 때마다 소외받아왔다”면서 “문 대통령이 5·18 등 호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만큼 지역에서는 이번 국정과제 반영과 국비 예산 등도 기대하고 있으니 잘 살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호남인사 배려에 대해 광주 등 호남지역민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광주에서 건의한 사업들은 잘 검토하겠으며 조만간 광주를 찾아 지역의 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중식 경제부시장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신규사업의 추진 및 국비 반영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중 국비예산 3차 심의를 벌여 9월1일 최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정과제로 본 광주 미래 ⑥친환경 미래에너지 육성

신기술 통합 솔루션 구축 스마트 에너지 시티 개발

남구 일대 1조4000억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자립형 스마트 산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안착한 한국전력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모두 에너지신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관련 법률의 제정, 산업단지의 조성, 연구기관 및 대표기업의 유치, 생산제품의 세계화 등이다. 광주시가 에너지신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별법은 ▲5년 이내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및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역협의회 설치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지원, 에너지특화기업등 지정 및 세제·자금 지원, 공동 연구·개발 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국가에너지신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하며, 지역기반형 국가선도 사업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현재 장병완 의원 등 32명이 특별법을 발의해준 상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광주 남구 일대에는 국비 4000억원 등 1조4000억원

을 들여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8년부터 10년간 조성될 330만㎡의 부지에 에너지 관련 기업, 연구개발시설, 교육시설을 동시에 갖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조성중인 진곡산단, 빛가람산단, 도시첨단산단, 빛가람공동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에너지밸리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 신기술 통합 솔루션을 구축해 스마트 에너지 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단지 내에는 2018년부터 5년간 280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는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용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대규모(55MW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입주기업과 신재생에너지 특수목적법인의 성공적 사업모델 제시 ▲산업단지 전력시스템 최적화 및 고도화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류(DC) 기반 에너지신산업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단지에 들어설 직류(DC) 기반 에너지신산업 플랫폼은 한국전력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력 및 관련기업 등이 시행주체가 된다. '직류 송배전 시스템'은 정부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중점육성 기술로, 한국전력이 2023년 직류 배전 상용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배전망은 국가 기간망이어서 정부 주도의 표준화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동남아 할랄식품시장 뚫었다

시장개척단, 인니 등 3국서 27만달러 첫 수출계약 체결

전남도가 동남아 할랄식품 시장을 처음으로 뚫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시장개척단은 최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 현지 바이어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복·김·유자차 등 10여개 할랄식품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결과, 27만달러어치 수출계약을 처음으로 성사시켰고, 100만달러 MOU도 체결했다.
할랄식품 시장은 지난해 기준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식품시장(6조

3000억 달러)의 17.7%를 차지한다. 무슬림 인구의 빠른 증가로 2020년 2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동남아는 무슬림 인구의 61.7%가 거주하고 할랄식품 시장의 49.7%를 차지한다. 특히 무슬림 인구 2억2000만명인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여서 시장 잠재력이 크다.
전남도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를 이슬람 시장의 관문으로 보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또 이번 시장개척단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분석해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중동 등의 할랄식품 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4만7천원부터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운빌딩 1층)